

코로나 문화예술계 지원 현장과 온도차 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포함 도비 투입 8개 분야 21억 일부 공모사업 응모 저조 홍보 강화 등 대책 고심 중 대관료보단 임대료 주문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 문화예술계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현장과 온도차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가 추경과 국비 사업을 통해 펼치는 코로나 관련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은 8개 분야 21억원 규모다. 지난 8월 6일 제주도가 발표한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3억원)

>문화예술교육 창의주제 공모 지원(1억원) >문화예술창작사업 대관료 지원(1억1000만원) >제주 예술공간 방역물품 지원(1000만원) >예술인 복지사업(5500만원) >코로나 위기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7억1000만원) >예술창작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4억5000만원) 등 7개 분야 16억9000만원에 국비(3억3200만원)가 포함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4억1500만원)이 더해진 결과다. 여기에 전액 국비(6억9000만원)로 제주문화재단이 공모한 '제주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JFAC 아트 체인지업'까지 합치면 코로나 관련 제주 문화예술계 지원 규모는 30억원에 육박한다.

도비가 투입되는 8개 분야 사업 중에서 1차 공모를 마친 사업은 당초

계획한 지원 건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 사업은 건당 50만원으로 금액을 낮춰 500건까지 지원할 예정인데 8월 14~24일 공모에선 184건이 접수됐다. 문화예술교육 창의주제 사업은 건당 100만원 범위에서 100건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공모 결과 21건 접수에 그쳤다. 이달 24일까지 공모(1차)하는 문화예술창작사업 대관료 지원은 1월 20일부터 8월까지 공연장, 전시장, 독립서점, 북카페 등에서 진행한 공연, 전시, 발표회 등 문화예술행사 대관료를 예술단체나 예술인에게 1건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9월~11월 30일 문화예술 행사는 2차 공모에서 대관료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문화재단 측은 코로나 지원

사업은 응모 자격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등 '소액다건' 방식으로 더 많은 예술인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응모가 저조해 일부 사업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팀 관계자는 "기존처럼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을 보는 사업의 경우 예술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공모에선 이 점을 고려해 홍보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관료 지원 사업은 책방 행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공공 공연장, 전시실 운영 중단이 길어진 탓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보다는 공간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나방에 투사된 우리 사회의 혐오

제주 백주순 관화 기획전 10월 3일까지 팩토리소란

지난해 11월 '실존(眞存)-사소한 생각' 주제 여섯 번째 개인전을 통해 나방에 우리 사회의 혐오를 투사했던 제주 관화가 백주순 작가가 그 연장으로 갤러리카페 팩토리소란(제주시 한복로 337-5)에서 기획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내가 나방이다'란 이름을 달았다.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누군가는 다시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 이즈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에 탄생한 관화 작품들이 나왔다. 어떤 이들은 온라인을 떠돌아 다니는 것들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작품 제작'을 하고, 어떤 이들은 남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걸 보며 작가는 혐오를 떠올렸다고 했

다. 데칼코마니처럼 펼쳐진 화면은 혐오가 또 다른 혐오를 낳는 사회를 은유하는 듯하다. 입으로 파악하려는 나방의 모습은 인간을 닮았다. "속이지마, 숨지마, 다 보여." 작가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잠언처럼 던지는 말이다. 지난 1일 시작된 전시는 10월 3일



백주순의 '내가 나방이다 2' 까지 계속된다. 전시장 연락처 070-4548-6428. 전선희기자

문화가 쫓겨

제주국악제 온라인 공연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회장 현영순)는 이달 20일 오후 7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무관중 제4회 제주국악제를 유튜브로 중계한다. 이날 공연은 '우리춤, 음악, 소리의 향기가 머무는 제주에서'를 주제로 마련된다. 월드퓨전시나위, 마룻바닥 비보이, 광개토제주예술단, 국가무형문화재 서도소리 전수교육교 유지숙 명창, 경기민요 이수자 김명순 명창과 국악협회 회원 30여 명이 출연한다. 국악협회도지회는 "오래된 것과 새 것이 교감하고 흥과 정을 나누는 제주국악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064)759-3888.

문협 전국 문학작품 공모

제주문인협회(회장 고운진)가 제59회 탐라문화제 행사로 제주 소재 전국 문학작품을 공모한다. 일반부는 시, 수필, 동화, 단편 소설을 공모하고 학생부는 운문과 산문 부문으로 나눠 접수한다. 기성 문인도 응모할 수 있다. 이와함께 영상을 통한 제주어 동화 구연(유치부, 초등부)과 기존에 발표된 시를 제주어로 개사하거나 제주어 창작시를 낭송해 영상으로 참여하는 제주어 시상송 대회(일반부, 학생부)도 실시한다. 접수는 9월 25일까지 이루어진다. 제주문인협회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748-3125.

로컬푸드 활용 요리 경연

서귀포YWCA(회장 고맹수)가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교육' 사업으로 요리 경연 등을 실시한다. 제주 농수산물을 활용한 참신한 레시피를 개발·보급하려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건강한 요리 경연대회'는 10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sgpoywca@naver.com)로 접수한 뒤 경연 진출자를 가려낸다. 요리 경연은 10월 22일 이루어진다. '건강한 집밥 사진 콘테스트'는 직접 요리한 건강한 밥상을 사진에 담아 9월 2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쿠킹버스 홈페이지 참고. 문의 762-1405.

청소년 4·3기억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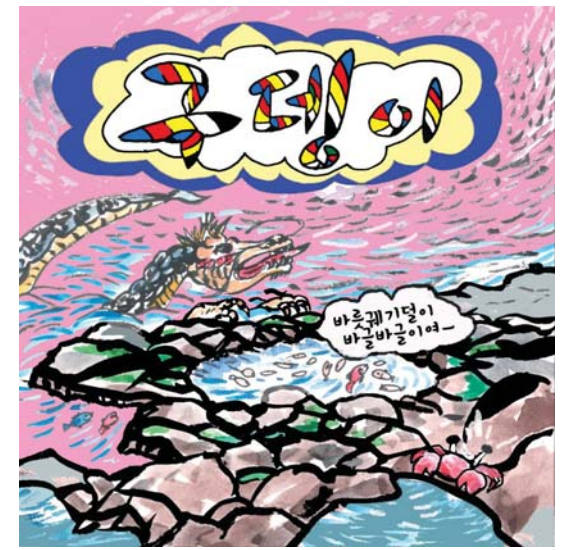
사단법인 제주민예총(이사장 이종형)이 "2020청소년 4·3 문화예술제"의 하나로 지난 4월 '제주4·3 수어 릴레이 캠페인, 함께 제주4·3'에 이어 '4·3기억 챌린지'를 펼치고 있다. 챌린지 운영 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달 간으로 4·3 72주년을 기념해 72팀의 참여와 28인의 개인 참여를 통해 총 100개의 사진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억하다'라는 수어 동작을 사진에 담아 공유하면 된다. 단체나 개인이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릴레이를 이어갈 3명 혹은 세 팀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환관

<221>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준네 골았저. "하르바지, 게민 봉황은 하늘에 여점 올라 갓단 왓구냐양?" 하르바지 골멘. "경헝기도 헝엿주만은 봉황은 성산 앞바당 게갓디 이신 물구멍이 슬퍼부젠 헝엿주게." 으맹이 골멘. "아고 하르바지, 바당물 짜민 물구멍이서 헝플락헝 꿩기 털이 바글바글 헝여마썸. 그 구멍이서 경이도 잡아났수다. 경헝극양 꿩기털이 물구멍이서 나오지 못헝영 이래저래 휘어맹기는 거 보민 잘도 쫓미나마썸. 경헝디 경헝 물구멍이가 또시 하간 디 이시카양?"

* 제주어 풀이

- *여점(여점) : <여찌>임시, 조금, 예사, 얼마나, 대충.
- *갓단 왓구냐양 : 갓다 왔네요.
- *게갓(게갓, 갓갓, 바르, 바룻) : 물 가까이 바닷가로 밀물과 썰물에 따라 물에 잠기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는 바다 말로, 주로 썰물 때는 쉽게 해산물을 잡을 수 있는 곳, 갓가.
- *구멍이 : <이름>구멍이.
- *물구멍이 슬퍼부젠 헝엿주게 : 물구멍이를 살펴보려고 하였단다.
- *바당물이 골른 : 바닷물이 고인.
- *헝플락헝 꿩기털이 : 작으마한 바닷고기털이.
- *물구멍이서 나오지 못헝영 : 물구멍이에서 나오지 못하여서.
- *하간 디(하간디, 하근디) : <이름>여기 저기, 여러 곳.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여찌>여찌씨(부사)/<대어름>대어름씨(대명사)/<썰>썰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소>때가됨소/<익은말>익은말씨/<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 1991)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예술로 제주 탐닉... 함덕을 기록하라

(사)제주민예총이 함덕마을에서 '기록으로 있다- 썰물에 씻긴 기억, 밀물져 온 개발'을 주제로 '2020 예술로 제주 탐닉'을 벌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4·3의 현장, 함덕 화요일 운영된다. 참가비 3만원(선착순 15명). 온라인 링크(https://bit.ly/2RcfrpW)로 신청하면 된다. 아본다.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마

을 이야기를 사진, 영상, 문자 등으로 기록하게 된다. 한진오 극작가와 양동규 영상사진작가가 진행을 맡아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운영된다. 참가비 3만원(선착순 15명). 온라인 링크(https://bit.ly/2RcfrpW)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758-0332. 전선희기자

알림 본보 9월 15일자 8면 '한리일보 인문역사 강의' 제5회 '제주도 마애명' 편에 실린 김정·이억 마애명 사진은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이 주최한 마애명 탁본 전시 자료에서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제주슬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모집직종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슬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